

의 건 서

□ 청원내용

- 시는 전국체육대회 중심시설로 박정희체육관 주차장터에 복합스포츠 센터를 건립할 계획임. 지상2층 규모로 지하주차장, 볼링경기장,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며, 시가 직영할 계획임.
- 중소도시 수요에 전혀 맞지 않는 40레인의 전국 최대 볼링경기장이 건립되면 구미시의 10곳에 불과한 볼링장은 문을 닫게 됨. 지역볼링장은 과잉경쟁으로 이용료가 전국 최저 수준이며, 최저임금상승,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.
- 볼링경기를 인근지역 및 구미시 시설을 이용하면 충분히 전국체전을 진행할 수 있음. 충분한 대화와 근거를 제시하여도 시에서는 우리의 의견을 전혀 반영치 않고, 볼링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,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'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였다'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연락조차 받지 못하였음.
- 서약서 첨부[전국체전 볼링경기를 구미볼링장(8곳)으로 활용 시 무료대관 및 봉사실시]

□ 의견사항

○ 청원 채택으로,

- 구미시는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유치계획에 따라 총 224억원 (국65, 도83, 시96)의 예산을 투입하여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음.
- 복합스포츠센터 내 볼링장 건립계획은 시민의견 수렴과 타지역 볼링장 활용방안 검토 등 시민공감대 형성과 예산절감을 위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친 후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그 소통부재로 인해 이해관계자들 간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음.
- 구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센터 내 볼링장 건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재차 요구되며, 향후 볼링장 활용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민간볼링장과의 공생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.
- 또한, 전국체전을 2년여 앞둔 현재 본 대회가 43만 시민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전 시민과 체육인, 체육업계의 화합과 상생을 이끌어 내야하고 개최준비 전반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함.
- 장기적으로는 ‘구미시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’을 수립하여 체육을 통한 지역발전, 시민 행복을 창출하는 체육정책 등 구미 미래체육의 비전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본 청원을 채택함.